

### <방글라데시에서 전해 온 소식들...>

동북쪽에 위치한 교회에 도난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던 중, 급기야 교회의 문을 부수고 실내까지 기물을 파손하고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시설물을 수리하고 보완했지만, 외진 곳 변변한 나무울타리 하나 없이 교회가 위치해 있어서 늘 걱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담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머물며 교회를 돌보았는데 이제 목회자가 교회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지역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코로나 이전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확산자수가 적지 않지만,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이제 예배와 모임이 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현지교회와 목회자들도 현지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2박3일 일정으로 구초그람 교회에서 총회를 주님의 은혜안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북쪽국경근처인 외곽이었음에도 100여명의 성도들이 총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한 목회자들과 교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총회를 통해 듣게 된 기쁜소식은 청년팀에서 아라빠라에 있는 교회를 섬길수 있도록 청년리더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가 순회하며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헌신된 청년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교회가 더 강건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협력하는 청년리더가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저희가정소식>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문을 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급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학년만을 위해 학교재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첫째인 시은이는 중등과정자격시험(IGCSE)을 치러야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은 열악하고 항공기 운항도 부정기적이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가야 했습니다. 출입국을 위해 검사 및 복잡한 과정을 끝내고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뒤 무사히 학교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6월 한국으로 나오기까지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온라인수업을 하며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 좋기도 하지만, 몸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 때에 정적인 수업에 갇혀있는 시원이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맘



껏 활동하며 움직이는 시기를 다시 맞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를 위한 재교육과 디브리핑상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영적인 충전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기에 현장이 그리워지고 교회들이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간섭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저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도제목

1.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일일 확진자수 5천명)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로 모임과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2. 코로나의 위험가운데 현지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3. 어려운 때에 현지목회자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4. 안식년 기간동안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5. 개인후원과 사역후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